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8일 렉싱턴 헤이스팅스 파크에서 개최한 김치페스티벌이 많은 한인 및 미국인들의 방문으로 빛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김치페스티벌에 방문한 미국인 부부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한인보다 미국인들이 더 많아

2022년 매사추세츠 한인회 김치페스티벌 550여명 참여 성황
한국 먹거리에 줄 끊이지 않아, 게임 중 최고 인기 매운 것 먹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매사추세츠한인회 김치 페스티벌이 한인 250여명 및 미국인 300여명이 참가(주최측 추산)를 이끌어내며 향후 대규모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8일 토요일 보스톤의 서북쪽 교외에 위치한 렉싱턴 센터 헤이스팅스 파크에서 개최된 김치페스티벌에는 오전 11시부터 참가자들이 입장을 시작했다. 서영애 한인회장의 개

회선언, 보스톤총영사관 홍순복 부총영사의 “한미수교 140년과 김치축제”에 대한 기념사 그리고 김치담기 시연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날씨가 맑아 펼쳐진 푸른 가을 하늘, 따스한 햇살이 김치페스티벌의 성공을 예감케 했다. 직접 김치담기 시연, 맛있는 김치 판매(배추, 깍두기, 총각김치)는 ▶▶8면으로 계속

보스톤 밀려드는 이민자들에 몸살, 이민단체들 부담

이민자들 돕는 단체, 병원, 교회 등 찾아 도움 청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로리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50여명의 이민자들을 마타스비니아어로 보낸 이후 최근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보스톤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이들을 돕는 이민단체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신규 이민자들은 텍사스 국경을 넘어 들어온 후 구급 센터에 보내지며 이후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쉼터, 친지들의 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 이들은 하이티,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정치불안정과 일자리부족, 폭력을 피해 피신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등지의 출신들이다.

이들은 로건공항, 사우스 스테이션, 병원 응급실, 교회의 헌관 그리고 비영리 보조기관들에 모여들어 음식과 잠자리의 도움 및 이민 서류작성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 ▶▶6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던홀 500여 한미관중, 가을 K-클래식에 취하다

필하모니아 보스턴, K-Classic 고향의 봄과 아리랑 연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의 가을, NEC의 조던홀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주 보스턴총영사관과 민주평통보스턴협의회가 공동주최로 열린 K-클래식(Autumn in Boston)에 참가한 500여명의 한미관객들은 클래식 선율에 깊어가는 보스톤의 가을을 만끽했다.

필하모니아 보스턴 오케스트라(대표 장수인)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한국인의 예술적 감성과 창조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클래식 음악 콘서트로 꾸며졌다.

보스톤 지역 한인 음악가들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성악, 한국 작곡가, 한국 가곡 등으로 꾸며진 무대에 외국인 관객들은 감동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역 대학 한국학관련 분야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는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 1부에서는 필하모니아 챔버가 기품있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차이코프스키(Souvenir de Florence), 김한기 작곡 <한국적 단순조곡>을 연주했다. 2부에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김기영씨가 자신의 곡 <고향의 봄> 합창조곡을 관현악, 성악 등과 함께 지휘해 많은 관객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김기영씨의 한국가곡집 <가을의 서정> 5곡

의 한국가곡을 필하모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소프라노 조연제, 테너 이일희, 바리톤 손형진이 노래해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음악회가 끝나자 관중들은 끝없는 박수와 세번의 커튼콜과 앵콜 연주를 소환했으며 김기영씨가 편곡한 arrirang on the Range(Home on the range+아리랑)곡이 앵콜로 연주될 때 관객들은 신신하게 어우러지는 익숙한 한미 두나라의 선율에 큰 환호를 보냈다.

필하모니아 챔버오케스트라의 장수인 대표는, “많은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다. 오늘밤 여러분에게 한국 가을의 소리를 소개할 수 있어 기뻐다. 10년간 성장해온 필하모니아 챔버오케스트라를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작곡가 김기영씨와 뛰어난 우리 연주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겁고 영광이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보스턴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에 감사한다” 고 전했다.

외국인 관객들은 ‘수준높은 연주가 놀랍고 아름다웠다’ ‘한국 연주자들도 모두 음악요정들같이 아름다웠다’ 수준 높고 창의적인 한국의 클래식에 감동했다’ 고 찬탄



을 금치 못했다. 한국인 관객들도 “가을편지를 선물 받은 것 같다. 한국의 고향생각에 목이 메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서정적 음악회였다” 고 감동의 감탄을 연발하였다.

한 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서정을 소개

하여 문화 공공외교의 장이 되었고 동포들에게는 고향과 추억,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절실히 바라는 시간이 됐다.

음악회 후 보스턴총영사관과 민주평통은 준비한 한국다과를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로 증정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K-클래식 음악회를 마치고

작곡가 김기영



먼저 이렇게 좋은 연주회를 기획해주고 후원해주신 장수인 필하모니아 보스턴 단장님과 보스턴 총영사관 그리고 보스턴민주평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음악회에서 소개되었던 한국인들의 정서를 가득 담은 곡들은 참석했던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기에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가을을 주제로 한 한국가곡 모음곡 가을의 서정'을 통해 한국가곡(Art Songs)의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이어서 이날 출연했던 모든 27명의 연주자들이 총출동하여 함께 꾸민 8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합창조곡 고향의 봄'을 통해 한국인들의 흥(excitement), 끼(talent), 한(resentment or sorrow) 그리고 정(affection or platonic love)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다.

마치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들을 때 제목만 들어도 음악 그 자체를 통해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림이 연상되듯, 합창조곡 고향의 봄의 각 악장이 그러했다. 성악, 현악 그리고 목금관 악기가

절절하게 융합되어 각 곡마다 스며있던 시인의 의도를 여러 장의 수채화처럼 표현하여 관객들을 고향으로 이끌었다.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빚어낸 질 좋은 연주가 합하여 깊은 감동을 불러온 것이 이번 연주회를 통해 거둔 성과라고 본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없었지만 앵콜곡으로 연주된 'Arirang on the Range'도 특히 미국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냈다. 'Arirang on the Range'는 미국민요 'Home on the Range'와 한국대표민요 '아리랑'을 절묘하게 섞은 곡으로 이번 연주회를 위해 이날의 지휘자였던 작곡가 김기영이 직접 편곡한 곡이다.

이날 참석한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도 자국의 민요와 한국의 민요가 섞여 나올 때 큰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의미있고 소중한 음악회가 역량있는 한인들의 주도하에 보다 자주 열려 K-Classical의 힘을 보스턴에 알리는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

제9회 한미예술협회 미술 전시회

Rejuvenation 주제로 11월 5일부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연례 미술 전시회가 오는 11월 5일(토)부터 19일(토)까지 렉싱턴에 위치한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에서 2주 동안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이 묶였던 여러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재생하는 것을 기념하여 'Rejuvenation' (활기를 되찾음)을 주제로 정했으며, 박경민 작가와 한요안 작가가 초대 작가로 참여한다.

박경민 씨는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베벌리에 위치한 엔디콧 컬리지(Endicott College)의 교수로, 도자기를 이용하여 주로 인물의 모습을 만든다. 그녀의 작품은 어른들의 어두운 감성과 닫혀진 정신 세계를 경계선이 없는 아이들의 의식과 나란히 놓아 대비시킴으로써, 관객이 그 대조를 느끼게 하고 개인의 기대와 서사를 성찰할 수 있게 만든다.

한요안 씨는 로드아일랜드 스퀴어 오브 디자인(RISD)의 교수이며, 아크릴 그림에 유포를 세밀하게 잘라서 만든 것이웃을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그의 작품들은 억압과 욕망 사이의 시각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뇌혈관 질환 그리고

갈라진 문화적 정체성에서 오는 이원성(duality)의 영향을 보여준다.

위의 두 작가 외에도 보스턴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명의 다른 작가들이 그림, 조각, 도자기, 줌치 등의 다양한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참여작가는 강달래, 김영아, 명을소, 변순득, 안영신, 유수례, 이상정, 이재욱, 이종은, 이형해, 주진영, 아니아길모어, 에리카 리시아-케인, 앤디 모어라인, 엘렌 슌, 최해경, 피터 헤인즈 씨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11월 5일(토) 오후 2시-4시에 열리는 오프닝 리셉션에 참석하면 작가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협회 웹사이트에서 전시 작가와 작품 정보를 볼 수 있다.

〈전시회 정보〉

제9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전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시 기간: 11월 5일(토) - 11월 19일(토)

운영 시간: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1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5시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보스톤한인교회 오아시스 음악회 29일 개최

Music for a New Chapter A Free, Live Concert Event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최하는 무료 오아시스 음악회 (Oasis Music Night)가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오아시스 음악의 밤 시리즈, “새로운 장을 위한 음악” 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

는 이들의 다양하고도 독창적인 시도들을 음악적 연대기로 풀어낸 공연이다.

이 공연에서는 바흐, 베토벤, 포레의 친숙한 옛 음악과 이번 공연을 위한 임주광, 정윤원 작곡가의 신작들이 연주되며, 각 작곡가가 그들의 새로운 장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독창적인 길들을 조명한다.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선보일 오아시스 음악회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충분한 거리두

기를 해야 한다.

오아시스 음악회 (Oasis Music Night)는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 공개 음악회를 선사하고 있다 (문의 : ecckcb@gmail.com).

오아시스 음악회
2022년 10월 29일 (토) 오후 7시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야유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임영호)는 지난 10월 1일 토요일 뉴튼에 위치한 어번데일 파크 (Auburndale Park)에서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25주년 기념 행사에 연이은 토요일날 행사인데다가 아침부터 오락가락하는 가랑비는 준비한 임원들의 마음을 좋게 하였으나 예상외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브라운대에서 오래 연구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1950년도 입학 모정자 동문으로부터 올해 학부를 졸업하고 하며

드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새내기 김다솔 동문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다양한 세대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하였다. 특히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회에서 여러 동문들이 참석하여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까마득한 선배들과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비가 걷히면서 진행된 2부에서는 동문소개, 상품권이 걸린 서울대 트리비아 게임 등의 순서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뉴잉글랜드 동창회 25주년 문집이 배부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김준수 박사, <유연재료 기술> 주제 뉴잉글랜드 포럼 강연

10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줌을 통해 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에서 주관하는 뉴잉글랜드 포럼에서는 김준수 박사를 연사로 10월 24일(월) 저녁 7시 30분 (동부시간)에 "유연재료 기술"이라는 주제로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재료 및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박사는 Science, Advanced Materials, Proceedings of the Na-

tional Academy of Sciences 등 저명한 학술지에 제 1저자 논문만 15편 이상, 총 30여편을 발표하는 등 많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젊은 과학자다.

이번 포럼에서 그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지식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 강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뉴잉글랜드 포럼은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강좌로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



김준수 박사
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당일 미팅 시간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ane.org)에 가서 상단의 주황색 바(bar)에서 'zoom' 옵션을 누르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2022년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안, 주요 내용과 후원금의 행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2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1월 총선에서 4가지 주민투표안을 결정하게 된다. 백만장자세에서 초과보험까지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이슈들이기에 많은 자본들이 투입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주민투표안 캠페인을 전개하는 위원회의 기부 금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각자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민투표안의 주요 후원자들을 들여다 보는 것도 핵심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보스톤글로브는 매사추세츠 정치 캠페인 재정국(Massachusetts Office of Campaign and Political Finance)이 집계하고 있는 기부자 중 1천달러 이상 기부자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기부자들과 후원금 모금액을 보도했다.

주민투표안 1안

백만장자세인 1번 주민투표안은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4%퍼센트 포인트를 부과해 이 세금으로 교육 및 교통시설 확충에 쓰겠다는 백만장자세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주민투표안이니 만큼 10월 5일 현재 주



민투표안 중 가장 많은 3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주민투표안을 반대하는 측에는 매사추세츠 재계가 줄을 대고 있다. 패트리어츠 구단주인 크래프트 소유기업, 서폭 컨스트럭션, 그리고 뉴발란스 짐 데이비스 회장 등이 많은 기부금을 지원했다. 백만장자세 찬성 측에는 노조와 교사 노조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찬성: \$21,396,217.99
반대: \$9,934,917.62

주민투표안 2안

주민투표 2안은 초과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수익의 일정부분 이

상을 가입자들의 의료비 또는 의료질 향상에 두도록 했다. 이는 보험회사와 치료의들의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찬성: \$7,967,769.92
반대: \$5,382,644.37

주민투표안 3안

이번 주민투표안은 매사추세츠 리커 스토어의 수를 점차 늘리는 한편 리커스토어 규제 법규의 변경을 담은 안이다. 리커스토어에서 셀프 체크아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타주 운전면허증으로도 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찬성: \$891,789
반대: \$12

주민투표안 4안

주민투표 4안은 최근 매사추세츠 의회가 제정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안에 관한 것이다. 찬성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반대는 현재의 법안을 철폐하는 것이다. 공화당 극보수층에서 이미 제정된 법안에 반기를 들어 서명지를 모았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의 민심을 반영하듯 찬성 측은 반대표의 9배가 넘는 기금을 모았다.

찬성: \$1,225,515.02
반대: \$130,914.61

hsb@bostonkorea.com

스왈스캇서 개와 산책하다 카요티 무리 공격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개와 산책하던 스왈스캇의 한 주민이 15일 밤 최소 9마리의 카요티 무리에 둘러싸여 위협을 받았다.

경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장소인 락크리지 로드(Rockledge Road)로 9시 30분께 도착했을 당시 최소 9마리의 카요티를 목격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카요티는 놀라서 흩어졌으며 경찰은 신고한 주민과 개를 안전하게 집으로 호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저녁 시간에는 카요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이 시간대에 산책시 주의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휴먼소사이어티(Humane Society)는 카요티를 만났을 때 헤이징(Hazing)을 통해서 카요티를 쫓아야 한다는 팁을 전했다. 헤이징 방법은 첫째, 절대 도망가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요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다. 또는 카요티 인근에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 우산을 흔들어 쫓는다. 소리를 내는 물체를 사용해도 좋다. 카요티는 그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멈춰 돌아오며 이 때, 또 다가가면서 위협해 쫓아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보스톤 밀려드는 이민자들에 몸살, 이민단체들 부담

▶▶1면에 이어서

의 정착을 돕는 기관인 첼시 소재 라 콜라보 래티바(La Colaborativa)의 글래디스 베가 대표는 지난 3개월동안 밀려드는 이민자들에게 제한된 규모의 예산으로 어떻게 돕고 배분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베가씨는 “이미 800명이 어포터블 하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고 어려움을 털어냈다.

주 및 지역 정부는 비록 정확한 유입 이민자들의 수치는 모르지만 일부 자선 이민 그룹들의 보고 수치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매타펜의 하이티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 기관 이민가족서비스원(Immigrant Family Services Institute)은 4월부터 9월까지 총 5,200의 이민자들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6개월 기관과 비교했을 때 6배나 늘어난 수치다.

보스톤 이민자어드밴스먼트의 모니크 투누엔 대표는 지난 2년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미셸 우 보스톤시장 대변인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 및 연방 정부 그리고 비영리 기관과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7일 헬터에 지난 봄 이래 1만7천명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총 6만 1천명의 이민자들이 헬터에 넘쳐나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들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피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 그리고 합법 이민자들까지 다양한 배경으로 미국에 입국해 있다.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 및 민주당 시장

등 정치인들은 이들 이민자들을 모두 미 동북부 진보성향의 도시로 버스를 태워 보내고 있다. 플로리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국경을 접한 주들의 이민자 난입으로 인한 부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48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을 텍사스에서 마타스비니아스 섬으로 보냈었다.

연방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올해 들어 2백만 이민자들이 유입됐으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약 1백만 이하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뉴욕, 보스톤 등 북부 지역으로 이민자 유입이 폭증한 것은 이 남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정확하게 원했던 것이다. 이들 지역 시의 이민단체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셸 우 시장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더 서비스가 좋을수록 더 많은 수요가 있게 된다” 고 이를 설명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는 이민자들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첼슬레인 마리우스씨와 그의 남편 레닛 스미스는 두명의 자녀와 함께 텍사스 국경을 넘어 올랜도행 버스에 올랐다. 하이티 출신의 그들은 올랜도의 친구집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필요한 이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보스톤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민가족서비스원(Immigrant Family Services Institute) 이야기를 듣고 보스톤을 향했다.

현재 IFSI가 임시 헬터로 사용하는 매타펜의 트리플데커에서 방을 나눠 쓰고 있다. IFSI는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민서류처리를 돕고 있다. 스미스는 하이티에서 건축자재회사에서 일했고 마리우스는



플로리다 드샌티스 주지사 마태우세츠에 보낸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이민자들, 이를 계기로 많은 이민자들이 보스톤에 몰리고 있다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그들은 만연한 갠단의 폭력에 위협을 느껴 탈출했다

뉴잉글랜드국제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New England)의 톨만씨는 현재 그레이터보스톤지역 자신의 기관에 약 4,200명 정도의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25% 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톨만씨는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이민자 단체들은 모두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은 이민자 단체뿐만 아니라 병원들에게도 시련을 주고있다. 병원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의료적 도움은 물론 잠잘 곳을 청하고 있다. 보스톤 칠드런스병원 대변인은 이민자들과 흡리시들을 위한 헬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들

은 교회를 방문한 이민자 가족들을 두고 비영리 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우버 운전사들과 공항의 직원들도 이미 이민자 단체의 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다.

주정부 건강보훈청의 대변인에 따르면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현재 이민자 보조 프로그램 위해 2천만 달러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주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3천만 달러를 정착지원 기관에게 배정한 상태다.

라 몰라보래티바의 베가씨는 현재 이민자 가족들은 절실하게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 한 가족은 복도에 기거하면서 한달에 \$600을 내고 있다. 다른 가족은 방을 커튼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한 가족씩 기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가씨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집과 렌트비” 라고 밝혔다.

그러는 도중에도 많은 이민자들은 새롭게 보스톤을 향하고 있다.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주택시장 거래 급감 ... 월별가격도 하락세

주택시장 급격하게 냉각, 주 전체 16.2% 거래 급락 내년 미 주택 폭락가능성, 보스톤은 포함 안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거래는 줄고, 가격은 점차 하락 그렇지만 매물 또한 급감하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증개인연합(GBAR)에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호황은 과거의 이야기였으며 급격하게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다.

GBAR이 집계하는 매사추세츠 64개 시와 타운에서는 9월 한달동안 총 단독주택의 경우 1,092채의 매매가 성사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무려 12.7% 줄었다. 콘도는 9월 729개만 거래돼 2021년 1,207개가 팔렸던 것에 비해 무려 39.6%나 곤두박질했다. 매사추세츠 전역의 부동산 거래

를 집계하는 워렌그룹의 18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9월 총 4,877채의 단독주택이 매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22채에 비해 16.2%가 줄었다. 콘도는 1922채의 거래가 성사돼 지난해 9월에 비해 22.9% 폭락했다. 이처럼 거래량이 주는 것은 자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고금리 시

대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맬린 라이베이라 회장은 “지난 6개월 전부터 주택 시장을 돌아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모기지금리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알 수 있다. 침체국면의 경제 상황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을 매물로 내놨던 주인들은 제값에 팔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매를 포기하고 있다” 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것은 주택 판매 중간가를 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레이터보스톤 지역 주택 중간가격은 \$763,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인상된 수치다. 그러나 이는 지난 9개월동안 보여왔던 8.6% 인상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더구나 월별로는 지난달의 \$825,000에 비해 7.5%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 6월 \$899,950 정점을 찍은 이래 3개월째 연이은 폭락이다.

1월에 비해 무려 \$1400을 매달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경제학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월 지급부담이 50% 상승했을 때 구입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좀더 저렴한 동네로 구매처를 옮기거나 좀더 저렴한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보스톤의 집값 하락은 미국내 전체의 하락 추세와 맞물려 있다. 페어웨더 박사는 현재의 하락세가 내년 정도에는 과도한 하락조정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가 보스톤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GBAR 바이에이라 회장 예측이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급랭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연준의 기준이자율 상승, 예상되는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충분한 매물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이유는 모기지 금리의 폭등으로 대부분의 구매자들을 주택시장에서 물러서도록 하고 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이자 모기지금리는 6.92%로 지난 2002년 이래 최고이며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이는 그레이터 보스톤에서 중간가의 집을 20%를 다운하고 구입했을 때 지난

바이에이라 회장은 아주 일부 하락세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스톤의 경우 신규건축은 거의 없고 매물도 극히 부족해 주택값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 얘기다. 체스넛힐 소재 부동산 윌리엄 래비이스 소속 매리 길라크 에이전트는 “좋은 위치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강하지만 더 많은 집주인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오늘 아침 자신의 현재 집의 모기지 금리가 2.6%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의 모기지 금리에서 그녀는 결코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권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LOVE THE LORD, LOVE THE LOST

WELCOME

보스톤 주안예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일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5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5
 @ Longwood T Station (D Line)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한인보다 미국인들이 더 많아

▶▶1면에 이어서

물론 불고기, 김밥, 김치전, 군만두, 오뎅 등 한국음식 부스에는 긴 줄이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행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학교가 끝나고 찾은 가족단위로 찾은 한인들과 2세 학생들 그리고 김치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이 모여들어 규모가 더해졌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은 매년 것 먹기 대회였다. 많은 관람자들이 몰려들어 관심을 집중시킨

이 대회에는 총 12명의 선수가 선별되어 참가하였다. 대회 1등은 여성 참가자인 아이비탕(Ivy Tang), 2등은 여성 참가자 김자경, 3등은 구아난 공(Guannan Gong)씨가 차지해 여성 참가자와 외국인이 강세를 보였다. 한인회는 1, 2, 3등 외에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모두 선물을 준비하여 아쉬움을 위로했다.

이외에도 제기차기에서는 15명

의 참가자 중 박형옥씨가 1등, 김호원, 김장용씨가 2, 3등을 차지했다.

한인회 측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인회 이길신 이사, 코렉스(KoLex) 양희원 회장을 이번 게임 및 행사의 사회자로 선택해 행사 진행을 부드럽게 이어갔다.

박터트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어이름 우리글로 쓰기 게임 등 어린이와 어른들을 나눠

서 진행했으며 한인들은 물론 많은 미국인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즐겼다.

이외에도 한국 무용(부채춤과 장고춤), 국기 태권도 시범, K-Pop 노래와 댄스 등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대훈 사무총장은 “해를 더하면서 현지 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과,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한복을 입고 참여한 뜻밖의 미

국인들이 많아서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서영애 한인회장은 “해마다 관심과 인기가 더해져진 김치페스티벌 행사가 내년에도 42대 한인회에서 더욱 새롭고 규모있는 행사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12월 한인회 송년파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 **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혹은 만성통증으로 어깨와 목 주변이 늘 빠근하고 결리시나요? 저도 휴대폰과 컴퓨터를 오래 쓰거나 집안일 특히 부엌일을 하고 나면 늘 어깨 주변이 쭈시더라고요. 틈틈이 제 한국어(요가읽어주는 여자)와 영어 유튜브 채널 (yoga song hayeon)에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 영상 참고해서 자주 목과 어깨 풀어주시면 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될 거예요. 이번 동작들은 영어 유튜브 채널 Yoga Song Hayeon 에서 Shoulder Pain 영상 참고해 따라해보세요.

1. Thread The Needle Pose (바늘 실 꿰기 자세)



1단계 테이블 자세에서 오른 팔을 왼팔 겨드랑이 밑으로 통과해 트위스트합니다.
2단계 목이 불편하신분들은 왼손등으로 머리를 받쳐줍니다.
3단계 가능하다면 왼팔을 천정위로 뻗어 줍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왼손을 등뒤에 가져가도 좋습니다.
TIP! 어깨가 많이 불편하다면 1,2단계까지만 가서 휴식하셔도 좋아요.

2. Spinal Rotation + Chest Stretch (누워서 어깨 열기)

1단계 배를 대고 누운 상태에서 사진과 같이 오른 팔을 왼팔 겨드랑이 밑을 통과해 뻗어 줍니다.
2단계 왼무릎을 바깥쪽으로 접고 천천히 왼팔을 머리너머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뻗어 줍니다. (무지개를 그린다고 상상)
3단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여러 번 반복하며 어깨와 가슴 앞면을 열어줍니다.
TIP! 돌리는 팔꿈치는 살짝 접고 최대한 두견갑골을 바닥과 가깝게 가져가며 쇄골 주변과

어깨 전면을 열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남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트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우유브도 못사신 러이브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교정도 받고 싶다면?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들 신청하고 싶어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터/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ason@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커네티컷 주택 백야드서 흑곰이 10살 소년 공격

휠체어 탄 조부, 이웃들의 도움으로 구조 흑곰 잠시 자리 피했다 같은 집 다시 찾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50파운드 가량의 흑곰이 일반 주택가의 백야드에서 놀던 소년을 습격해 그를 끌고 숲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다.

환경경찰에 따르면 피습을 당했던 소년은 커네티컷 모리스 타운에 있는 할아버지를 방문해 16일 오전 11시께 트램폴린 인근에서 습격을 당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

할아버지인 제임스 버틀러씨는 곰이 백야드의 숲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소년을 습격했다고 말했다. 비명소리를 듣고 갔을 때 곰은 소년의 다리를 물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끌고 가려 했다. 휠체어를 탄 버틀러씨는 쇠 막대기를 곰의 머리에 던졌다.

곰은 소년을 잠시 놓았으나 곧바로 다시 발톱을 사용해 그를 뒤집으려 했다.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달려들어 막대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 곰을 쫓았다.

그러나 버틀러씨와 손자가 집안

으로 피신한 후 곰은 다시 돌아와 스크린도어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버틀러씨는 “스크린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 곰은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 당했다.

소년은 허벅지에 찔리는 상처를 입었으며 발과 발목에 이빨 자국이 남았다. 또한 등에는 할린 상처를 입었다.

커네티컷 주 제니 딕슨씨는 커네티컷의 곰 개체수가 증가,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맛을 알게 되면서 곰과 사람간의 부정적 인 만남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주말 보스톤 개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DECISION TO LEAVE)이 이번 주말인 21일부터 AMC Boston Common, Landmark Kendall Square 2개 극장에서 상영된다.

박찬욱 감독의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보스톤 개봉을 기념해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한미예술협회와 공동으로 2명을 선정, 각 2장의 티켓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하고자 하는 독자는 박찬욱 감독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이 기사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헤어질 결심은 미스터리, 로맨스 영화로 박 감독이 연출하고 박

해일과 탕웨이가 주연을 맡았다. 박찬욱과 정서경이 각본을 공동 작업하였다. 2022년 4월에 202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며,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겼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많은 관람객들이 '헤어질 결심'을 보고 여러 번 '다시 볼 결심'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묘한 영화의 연출에 매력을 느꼈다는 평이다.

살인 사건을 조사한 품위있는 형사와 살인 혐의자 아내와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정훈희와 송창식의 <안개>라는 노래 듀엣으로 막을 내린다. 영화의 배경도 산에서 시작해 바다에서 끝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9회 예술협회전

REJUVENATION

11월 5일 - 19일

Opening Reception
11월 5일 (토) 오후 2-4

Lexington Arts and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More information at kcsboston.org

공화당, 우크라이원 놓고 집안싸움?...상·하원 수장 입장차 극명

하원 원내대표 "선거 이기면 제동"...상원 원내대표는 지원 주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쌍두마차인 미치 맥코넬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두고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지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대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음 달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지형이 바뀔 경우 공화당 내 상하원 수장 간 입장차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상원은 양당이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매카시 원내대표의 말처럼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상당한 협박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그 수장인 매카시가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배정 요청을 하원 차원에서 되짜를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매카시는 최근 미 매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기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침체 우려 속에 '묻지마'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돈을 퍼부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 등 다른 유럽 동맹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앞장서 이 끌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의회가 123억 달러의 군사·경제 지원안에 대한 임시 지출 조치를 승인할 때도 맥코넬은 찬성표를, 매카시는 반대표를 각각 던진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지점을 지적하면서 "선거 이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두 사람 간 첫 주요 정책 차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축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회 지형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전인 연말 의회 레임덕 세션에 대규모 예산안 패키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새 의회에서는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예산법안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

다만 맥코넬과 매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원내대표 매카시 의원과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 의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대한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민주당에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고 공화당 소식통은 전했다.

지원이 하되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올해 초 이런 지출을 감시할 특별 감찰관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발의해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공화당이 하원 등을 장악하면 이 법안이 다시 물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매카시 원내대

표의 인식에 대한 당내 반발도 없지 않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공화당에 '내부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레 나온다.

리즈 체니 하원의원은 매카시 원

내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수치스럽다"고 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77 곡사포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 주택매매, 10년만에 최저 수준... 집값도 석 달 연속 하락

전년동월 대비 집값은 계속 상승...NAR "바닥 아니지만 시장붕괴 없을 것"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9월 기준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5% 감소한 471만 건(연율)으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줄어들어 지난 2007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매매 건수는 23.8% 급감했다.

가격도 지난 7월 이후 석 달 연속 내림세다.

지난달 팔린 기준주택 중위가격은 38만4천800달러(약 5억4천911만원)로 8월(39만1천700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9월 집값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로 역대 최장인 12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가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부담이 높아진 것이 주택 수요를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며 기준주택 매매 건수가 450만 건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주택 공급이 적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NAR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 재고는 125만 채로 전년 동월보다 0.8% 감소했다.

firstcircle@yna.co.kr



시카고의 한 주택

아직 코로나19 극복 못한 대학가...3년 연속 등록 학생수 하락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특파원 = 미국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전국학생정보처리연구소(NSCRC)를 인용해 올해 미국 전체 대학의 등록 학생수가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연속 학생 수가 줄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신입생의 수가 16.1%나 감소한 것을 포함해 전체 학생 수가 4% 줄었다.

방역 탓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과 캠퍼스 내 감염에 대한 공포 등이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탓에 대학 학비가 부담스러워진

가정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에도 미국 대학의 등록 학생 수는 3.1% 감소했다. 등록 학생 감소 현상은 미국 중서부나 북동부의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대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온라인 대학과 흑인 대학들은 오히려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대학의 등록 학생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2% 늘었다. 특히 18~20세 연령대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웨스턴 거버너스대의 경우 18~24세 연령대의 학생이 5년 전에는 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로 늘었다.

firstcircle@yna.co.kr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대장동발 개발 비리, 1년만에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로 확산

지난해 1차 수사, 대장동팀 기소에 그쳐...잇선 수사 정체 유동규, '김용에 8억 전달' 진술...수사 종점 이재명 관측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1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이 대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9일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다.

김 부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년간 이어진 대장동 수사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다면 김 부원장의 체포를 계기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됐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도 대장동 수사가 7~8년 전이지만 대선자금 수사는 불과 1년여 전이어서 여론의 주목도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 부원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터라 아직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검찰의 우선 과제다.

돈이 건네졌다면 이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사후에 인지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출발점은 대장동이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4~8월 대장동팀에서 김 부원장으로 돈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성남시 측과 사업자 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검사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유전본부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수사에서 '잇선'인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담수사팀 출범 후 3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성남시장실·비서실을 압수수색해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지만 중간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 그쳤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차장 등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도 수사의 약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 여러 명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던 '50억 클럽' 의혹 수사 역시 광상도 전 의원을 구속키로 한 후 멈춰 섰다.

연말부터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수사팀은 '공판 모드'에 들어갔다.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자 당시 야권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대규모 검찰 인사로 기존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돼 윤 대통령과 근무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로 재편된 중앙지검 반부패 1·3부는 사건을 초기부터 되짚어가며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장동에 앞서 진행된 위

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망을 넓혔다. 사건의 성격이 공무원이 비밀 정보를 민간에 누설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짬짜미 범죄로 규정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유전 본부장 등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민간사업자와 성남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전 본부장을 상대로 '잇선'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의혹을 부인하던 유전 본부장은 최근 조사에서 김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된 만큼,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

도지사 선거 과정도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당사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 수사의 종점은 결국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trauma@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21st - OCT. 27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SHRIMP THE BEST SEAFOOD BLACK BEAN NOODLES PLATTER
The Korean-Chinese fusion dish you know and love, Seafood Black Bean Noodles! Bring that professional restaurant-level taste home, because every ingredient in this recipe is available at your local H Mart! Shrimp, pork, and squid galore, this is one platter you won't want to skip out on.

H 마트와 함께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 푸짐한 해물쟁반짜장을 만들어보세요!



<p>Hami Melon 하미 멜론 LB \$1.99</p>	<p>Niabell Lago Grape 니아벨 라고 포도 3 LB/PKG \$11.99</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1.99</p>	<p>Basket Kiwi 바스켓 키위 2LB/PKG \$4.99</p>	<p>White Cabbage 화이트 캐비지 LB \$0.99</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LB \$1.99</p>	<p>Kabocha 단호박 LB \$1.49</p>	<p>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4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4-16 OZ/PKG \$1.4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1.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12.99</p>	<p>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7.99</p>
<p>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돈까스 LB \$5.99</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p>
<p>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소삼겹 양지 SLICED/LB \$12.99</p>	<p>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WOODANG Frozen Stir-fry Arm Octopus/Octopus/Cuttlefish/Squid 화우당 주꾸미/낙지/갑오징어/오징어 볶음 SPICY/12.69 OZ/PKG \$5.99</p>	<p>Frozen Seasoned Seaweed Salad 냉동 해초무침 1.1 LB/PKG \$6.99</p>
<p>Frozen Pollock 동태 500-900 SIZE/LB \$1.99</p>	<p>Frozen Cleaned Salted Yellow Croaker 손질된 자반 잡초기 300-350 SIZE/LB \$7.99</p>
<p>TONGTONGBAY Frozen Squid Baby Octopus and Octopus 통통배 오징어 1 LB/PKG \$12.99</p>	<p>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ASIAN BEST Jasmine Rice 아시아 베스트 자스민쌀 25 LB \$19.99 (LIMIT 3)</p>	<p>CJ Hetbahn Cooked White Rice CJ 햅반 7.4 OZ X 12 EA/BOX \$12.99</p>
<p>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Somen 해오름 소면 5 LB \$4.99</p>	<p>DONGSUH Maxim Instant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100 STICKS/PKG \$12.99</p>

<p>ORGANIC FARM Organic Brown Rice 유기농장 100% 유기농 안삼잡곡 현미 15 LB \$34.99 (USDA ORGANIC)</p>	<p>PALDO Bibim Men Oriental Style Noodles 팔도 비빔면 4.58 OZ X 5 EA/PKG \$4.99</p>	<p>HAIYO Yaki Sushi Nori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시김 50 SHEETS/4.93 OZ \$5.99</p>	<p>HAIYO Dried Seaweed 해오름 완도 미역 7.05 OZ \$4.99</p>	<p>HAIOREUM Premium Coarse Salt 해오름 명품 굵은 소금 10 LB \$11.99</p>
<p>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 \$7.99</p>	<p>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아시아 스타일 면 1.5 LB \$2.99</p>	<p>GREEN LAND Rice Paper 그린랜드 라이스페이퍼 22 CM/12 OZ \$2.99</p>	<p>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향긋리 강냉이 5.99 OZ 2\$5 FOR</p>	<p>KWANGDONG Ssanghwa Gold 광동 쌍화골드 3.38 FL OZ X 10 BTLS /BOX \$7.99</p>
<p>HAIY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p>	<p>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 FL OZ X 6 EA/PKG \$5.99</p>	<p>Smile Babble Soju Glass 스마일 와글와글 소주잔 6 PCS/SET -\$11.99 \$7.99</p>	<p>KOTO Electric Home BBQ Grill 코토 홈 바베큐 전기그릴 47 X 26.5 CM/EA -\$49.99 \$29.99</p>	<p>PAWIE Antibacterial Cutting Board 파비에 솔레지엔 향균 양면 대도마 24 X 39 CM (L) -\$8.99 \$5.49 EA</p>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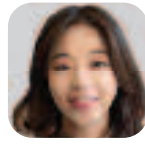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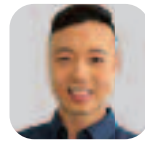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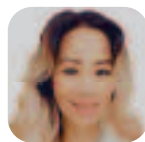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enjamin Fiorentino
617.775.9583
ben@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NY and GA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SOLD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UNMATCHED PRICE!

가을철 원기회복, 힘이여 솟아라!
바다장어 두가지 소스는 덤

OCT. 13th - OCT. 27th, 2022



11.99 OZ/PKG

통영 바다장어
Premium Eel
from Korea

\$8.99

경상북도 예천에서 자라
더욱 찰진 일품쌀

STARTING OCT. 13th, 2022
(LIMITED SUPPLY)

예천 일품쌀
YECHEON
Korean Rice

~~REG. \$35.99~~

\$24.99

22 LB



FROM KOR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는 한국연립은행의
정부보증 수속을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연립은행
Korea First Bank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in Boston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07) 뮤추얼 펀드의 문제점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펀드가 있다.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한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설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한다. 비용면에서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함께 일하는 주식 선별가 등에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인덱스 펀드는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이 없기에 투자비용이 매우 적다.

뮤추얼 펀드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미래에 유망한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고 말한다.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주식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한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투자할 회사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500개 회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을 회사만 선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뮤추얼 펀드이다. 언뜻 생각하면 정보력도 많고 투자돈도 풍부하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주식 선별가가 머리를 모아서 회사를 선별하기에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통계가 보여준다.

최근 월스트리트지(Almost half of stock pickers beat the market in early 2022 selloff, Karen Langley, WSJ, September 15, 2022)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뮤추얼 펀드 49%가 인덱스 펀드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에는 85%의 뮤추얼 펀드가 인덱스

스펀드보다 수익률이 나쁘다는 결과이다.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뮤추얼 펀드의 성적은 더욱더 떨어진다. 지난 20년 수익률 통계를 살펴보면 무려 95%의 뮤추얼 펀드가 수익률을 비교할 때 인덱스 펀드보다 나쁘다는 결론이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뮤추얼 펀드의 생존율이다. 같은 기간 뮤추얼 펀드 생존율은 단 26%에 불과하다. 즉 74%의 뮤추얼 펀드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미국에 이민해 온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생활하는 무지의 한인들 이용하여 투자 경비는 많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종목이나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

뮤추얼 펀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를 월스트리트 재정신문이 자세히 발표(Have I got a fund for you! Why brokers push some investment, Jason Zweig, WSJ, January 4, 2019)한 적이 있다. 부제목으로 '재정설계사가 추천하는 투자 종목에 숨어있는 내용

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이유가 재정설계사에게 이익이 발생(Digging in to the fine reveals the incentives that may lead investors to get conflicted advice)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많이 부과된다. 수익률도 인덱스 펀드보다 적을 확률이 높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자주 사고팔기에 세금 부담도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30여 년부터 추천한 이유이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Client)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다. 평균 투자 경비가 단 0.1%보다 적기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아이들 학자금이나 은퇴자금을 인덱스 펀드나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해서 운용해야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7세 풍월주風月主 흠돌欵突(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으며, 왕비였던 딸은 폐비가 되었고, 혈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흠돌의 난'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05)

역모로 죽었기 때문인지 화랑세기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미량이며 업적이나 칭찬의 내용은 전혀 없다(당시 흠돌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할때 호성장군이 바로 화랑세기의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한 김오기였다. 김오기는 김대문의 아버지이다).

김흠돌은 627년 태어나서 656년에 풍월주가 되었다. 그가 풍월주로 재임할 당시에는 백제와 고구려에 대항한 수 많은 전쟁이 있었다.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678년 간 이어온 왕조가 막을 내렸다.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황산벌 전투에서도 백제군사들에게 몇 차례나 밀리면서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 전투에는 풍월주 김흠돌이 이끌던 많은 화랑도들도 참전하였다. 그들은 '임전무퇴臨戰無退' 의 화랑도 정신을 받들며 고귀한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품일金品日 장군의 아들 화랑 관창官昌과 김흠순金欵純 장군의 아들 화랑 반굴盤屈이었다.

405) 681년 7월 제30대 문무왕 김법민이 죽었다. 이어 즉위한 신문왕 김정명은 즉위 1개월 뒤인 8월, 삼국통일전쟁 때 많은 공을 세운 장군 김군관(화랑도 출신으로 23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을 상대등에서 병부령으로 강등시켰다(겸직하던 자리를 상대등에서 해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고구려 멸망은 물론, 나당전쟁에서도 종군한 백전노장을 강등시킨 것은, 수많은 전쟁과 그 승리의 결과로 삼국이 통일된 후, 거대해진 무관진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견해가 크다).

그리고 며칠 후 8월8일, 신문왕의 장인인 잡찬(3등급) 김흠돌이 주축이 되어 파진찬(4등급) 김흥원, 대야찬(5등급) 진공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 모두 화랑도 출신으로, 흠돌과 진공은 풍월주를 지냈고, 흥원은 진평왕의 손자이다. 특히 흠돌은 문명태후(김춘주의 비)의 조카이자 신문왕의 장인으로 위세가 상당했다. 그러나 신문왕은 즉위 후 막강한 권력을 가진 흠돌을 견제하여 전제왕권을 확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편 김군관의 강등으로 김흠돌 세력이 도모했던 역모가 일어나자 그들은 서둘러 반란을 일으켰고, 이미 예상한 신문왕은 준비된 진압군으로 반군을 제압하였다. 신속으로 도망쳐 숨은 잔당들까지 살살히 추적해 3~4월 만에 모두 주살하였다. 그리고 16일에는 교서를 내렸다.

그 교서의 일부를 보면 "... 과인이 왜소한 몸과 불품없는 덕으로 숭고한 기틀을 받아 지키는라 먹을 것도 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들며 여러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 하였다. 그런데 어찌 상복도 벗지 않은 때에 경성에서 난이 일어나리라 생각했겠는

가? 적과의 우두머리 김흠돌, 김흥원, 진공 등은 벼슬이 자신의 재주로 오른 것이 아니고, 관직은 실로 성은聖恩으로 오른 것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삼가 부기를 보전하지 못하였도다..."

주모자들은 모두 참형을 당했고, 혈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김흠돌의 딸인 왕비도 폐비되었다. 그 후 곧 김흠순(공교롭게도 그는 김흠돌의 형 또는 아우이다) 의 딸을 계비로 맞았다. 그가 신목왕후이며 제32대 효소왕과 제33대 성덕왕의 어머니이다.

김군관 역시 모반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참수당했고, 혈족은 멸하지 않았지만 김군관의 아들 한 명을 자결시켰다.

그럼 김흠돌은 왜 모반하였는가? 견해와 해석은 여러가지이다. 친밀하게 지내던 김군관의 강등과 후손을 얻지 못하고 있던 왕비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일으켰다는 설과 통일전쟁의 승리로 거대한 진골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한 '친위 구테타' 설 등 분분하다. 결과적으로 신문왕의 즉위와 함께 일어난 '유혈 사태' 는 신문왕에게는 무소불위의 강력한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6세 풍월주 진공眞功은 5년간 그 직위에 있다가 656년 김흠돌에게 물려주었다. 흠돌은 627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 김달복金達福과 정희이다. 달복의 선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다른 아들 흠윤이 태종무열왕의 사위로 삼국사기 '김흠윤전' 에 "김흠윤은 나물왕의 8세손으로 아버지는 달복 잡찬이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달복이 내물왕의 8세손이며 잡찬(3등급)의 벼슬을 지낸 진골 귀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흠윤은 김춘추와 후궁(보희, 김유신의 동생)의 딸 요석공주를 아내로 맞아 딸(신문왕의 왕비인 신목왕후)을 낳고, 655년 조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요석공주는 후일 원효대사와 혼인하여 실총을 낳았다).

정희는 김서현의 딸로 유신의 동생이니 문명왕후 문희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래서 흠돌은 이모인 왕후의 후견으로 '마음이 험악하고 간사한 피가 많아 사람들이 모두 꺼렸음' 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여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가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왕자를 차기 군주로 세우려고도 하였다. 후일 681년에는, 왕(신문왕)의 장인이면서도 반란을 일으켜, 실패로 돌아가자 처형당했

CUCKOO

우리집 구석구석 **쿠쿠**로 센스있게

가을맞이 업**쿠**레이드

기간 | 09.29.2022 - 10.27.2022 조건 | 기간 내 주문 & 10월 내 설치

풍성한 10월 특별 혜택

일시불 구매시 **10% 할인**
비데 또는 버블 클렌저 추가 구매시 **50% 할인***
2대 이상 렌탈/구매 시 LED 마스크 **50% 즉시 할인**

안마의자 전용 혜택

임페라토르 4D: **\$800 상당 LED 마스크 증정**
듀크 스마트 3D: **\$375 상당 초강력 공기청정기 증정**
렌탈 시 **다운페이 \$500 면제** | 구매 시 **최대 \$2,000 할인**

3대 렌탈/구매 시



\$590
상당

쿠쿠 IH 압력밥솥 증정

*프리미엄 제품 1대 포함 필수

CRP-JHSR0609F | 6인용

2대 렌탈/구매 시



\$260
상당

쿠쿠 압력밥솥 증정

CRP-RT0609FW | 6인용

1대 렌탈/구매 시



\$150
상당

쿠쿠 제빵기 증정

CBM-AAB101S

NEW



Nello 트윈팬 펫드라이룸

목욕 후, 산책 후, 낮잠까지 편안하게!

Twin-fan 회전형 입체바람으로 건조

상단 필터부 오픈으로 쉬운 혼련과 적용

수면모드로 안락한 하우스 활용 가능

정상가 ~~\$999~~
런칭특가 **\$799**

산책 후 오염물질, 에어샤워로 제거

이음새 최소화로 청결한 사용

하단 바퀴로 이동, 청소 편안한 사용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혜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시 필수
• 시즌을 조기 소진 시 동일 가격대 다른 시즌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시즌종 관련 부품과 필터등의 추가 구매와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제작 해지 또는 반품 시 지급한 시즌상품은 회수될 수 있음

• 프리미엄 제품: 정수기 MM090 외, 전채품 | 공기 청정기 DF090 외
LED 마스크 프리미엄 | Nello 트윈팬 펫드라이룸
•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제빵기
* 비데 또는 버블 클렌저 2/4/6/8대에 구매 시 할인 50% 적용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미국 입국 불허 사유

이민법에는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입국 불허 사유"라고 합니다. 이민자는 이러한 입국 불허 사유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이 입국 불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민자는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이민자가 위에서 언급한 입국 불허 사유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영주권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민 기관은 이민자가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입국 불허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미국외부의 미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내부에서 신분조정 또는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또는 미국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할 때. 이민자가 이미 미국 내에 있을 때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인 추방 사유라고 하는 입국 불허 사유와 유사한 법률도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불허 사유에는 건강 관련 이유, 불법 입국, 입국 당시 적절한 서류 부족, 불법 체류, 범죄 관련 사유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이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에 입국 불가 판정을 받으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ve Bae의 법률 사무소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이민 케이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전화주세요.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 10월 2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크게 기지개를 피고

●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신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5, 27일 길일, 23, 29일 주의.

소띠 | 미리 대비를 해두는

●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3,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범띠 | 밝고 환하게 웃는

●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4, 29일 길일, 23, 25일 주의.

토끼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배부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야기도 야기된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용띠 | 냉철하게 살펴보고

● 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뱀띠 |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걸로는 관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말띠 |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복 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양띠 |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원숭이띠 |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돌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닭띠 |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개띠 |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29일 길일, 26, 27일 주의.

돼지띠 | 훌훌 털어버려야

●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리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셰프 및 키친 스태프
Tel 617-308-4742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시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영화 '자백' 소지섭 "첫 스릴러 도전, 쾌감 느꼈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처음 스릴러 장르를 해보니 캐릭터가 명확하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정확하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쾌감도 있었습니다."

배우 소지섭이 영화 '자백'으로 스크린에 돌아왔다. 그간 악역보다는 선한 배역에 비중을 뒀던 그에게 스릴러물은 이번이 첫 도전이다.

19일 서울 삼정동 카페에서 만난 소지섭은 "제가 (스릴러물) 선택을 늦게 한 면도 있지만, 저에게 이런 대본을 주지 않았다"며 "드라마도 영화도 대부분 착한 역할만 주신 것 같다" 환하게 웃었다.

스릴러물은 반전이 이어지는 특성상 배우의 복잡다단한 감정연기가 작품의 집중도는 물론 흥행을 가르는 요소다.

그런 면에서 언론사사회를 통해 보여준 연기는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상대역으로 나온 배우 김윤진, 나나와 호흡도 작품의 몰입감을 높였다.

'자백'은 유망 사업가 유민호(소지섭)가 호텔 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며 시작한다. 승률 100%의 변호사 양신애(김윤진)를 별장에서 만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작품은 반전과 결말로 이어진다.

스페인 영화가 원작이지만 큰 틀을 빼놓고는 내용과 결말이 다르다. 관객은 끝까지 배우들의 연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자백'에서는 반복적으로 두 공간이 배경으로 많이 나온다. 유민호가 살인 용의자로 몰린 호텔 방, 무죄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숲속 별장이 그곳이다.

"간혀있는 공간에서 촬영이 많았어요. 호텔도 그렇고 별장도 그렇죠. 대본을 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걷어냈습니다. 또 (윤종석) 감독님을 만나 대본 정리를 다시 하고, 리허설도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 '엑기스'만 촬영하면 됐고, 배우들도 오히려 (밀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죠."

소지섭은 극중 상대역이었던 선배 김윤진과 후배 나나와 작업한 소감을 묻자 "깜짝 놀랐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윤진 선배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직도 깜짝 놀라는 게 대본을 통으로 외우시더라고요. 진짜 충격을 받았습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다 있었습시다. 제가 '어설프게 준비하면 완전 밀리겠는데'라고 생각했죠. 좋은 자극을 받았습시다. 나나 씨는 연기할 때 눈을 보면 마치 빠져들 거 같더라고요. 당황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시다."

'자백'은 촬영이 끝나고 개봉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코로나19 사태 탓이다.

"빨리 큰 화면에서 보고 싶었다"는 그

는 "영화계가 어려운데 개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백'이 아니라도 한국 영화를 많이 봐 달라"고 당부했다.

두 해전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던 소지섭은 배우로서 작품에 임하는 태도를 말할 때 한층 더 성숙함이 묻어났다. 훗칠한 미남 배우 타이틀을 뛰어넘어 이제는 영화계 전체를 조망하는 관록의 영화인이 된 듯했다.

"이제는 제가 잘 되거나 더 인기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일했던 스태프, 배우들이 잘되는 걸 봤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물론 제가 잘 돼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eddie@yna.co.kr

BTS 진 솔로 싱글, 콜드플레이가 작곡·작사·연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매행 진이 입대를 앞두고 28일 내놓는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넛'(The Astronaut)이 영국 출신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은 20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콜드플레이의 참여를 알리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는 지난 15일 부산 단독 콘서트에서 "굉장히 좋아하던 분과 인연이 맞닿게 돼 노래를 내게 됐다"고 귀띔한 바 있다.

콜드플레이는 '디 아스트로넛'의 공동 작곡, 작사, 연주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는 지난해 9월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를 발표한 인연이 있다. '마이 유니버스'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진과 콜드플레이는 '디 아스트로넛'을 통해 색다른 매력과 환상적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생의 세 갈래길

"언제나 한 번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네비게이션도 없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길을 잃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 _김용태 교수 글 중에서.

그렇다, 우리는 어제를 살았지만,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존재다. 그저 오늘 이 시간엔 충실하며 맞고 보내고 또 오늘과 다른 어제를 만들며 산다. 단 한번도 미래는 살아본 일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불안한 존재인 까닭이다. 현대인들은 바쁘지 않은가. 그 빠른 걸음으로 어느 목

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일까.

"우리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기대하는 생활을 그리며 산다. 문제는 자신의 현실과 그 간극이 커지면 생기게 되는데, 자신의 현실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는 게 괴로워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주어진 현재를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과거에 빠져 사는가 하면, 허황된 미래에 빠져 살기도 한다. 몸은 현실에 존재하는데 영혼한 곳에서 방황하며 정작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이들 역시도 살아온 세상의 경험만큼이나 보람과 영광의 산정상의 높이보다 찢기고 얽힌 상처의 아픈 골이 깊디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이 우리네 삶이란 생각이

다. 유한적인 삶과 인생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산을 올라본 이들은 알 것이다. 산을 오르는 안내표지판이 트레일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산속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령 같은 산 같은 트레일을 여러 번 올랐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교만이다.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의 삶에 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인생의 모든 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현재가 어제의 현재였으며 내일의 현재인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 사뭇 물을 가서 가고 싶은 장소를 찾으려면 내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갈 방향을 정하고 찾는 곳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내 현 위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담는다. 겉모습의 내 모습뿐만이 아닌, 내 내면의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까닭이다. 나의 건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발을 얼마만큼 앞으로 내디딜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알지 않겠는가. 무작정 마음만 앞서다간 낭패가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현재에서 과거의 길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너무도 허황된 부푼 꿈으로 현재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한다. 삶뿐만이 아닌 신앙생활(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 확실한 목적지가 지금 나의 현 위치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시 제대로 된 목적지 방향으로 놓아야 한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점검하는 오늘이면 좋겠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통상通商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책 로마인 이야기에 나온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와 이집트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자리했다. 자연스레 그들은 피차 교역하는 통상관계에 있었다. 서로 물건을 내다 팔고 사는 관계였던 거다. 단연 그리스가 선두 교역국이었고 상업적 힘은 타국을 압도했다.

불과 수십년전 일이다. 1억불이며 100억불이라 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다. 그런데 작년 한국의 교역량은 1조3000억 달러에 가깝다고 했다. 이제 한국은 앞선 통상通商 국가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게다.

= 내다 파는 물품들을 수출품이라 한다. 유조선이나 현대폰이나 자동차나 티비가 바

로그것들이다. 화장품도 있긴 하다. 어디 그 뿐이라 현대식 무기도 내다 판다고 들었다. 대동강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 되는 건가.

= 한국신문 한구석에 나왔다. 크지 않은 기사인데, 뉴스꺼리도 아닌 모양이다. 전투기를 팔기로 했다는 거다. 더불어 탱크와 자주포도 역시 같이 수출하기로 했다던가. 규모도 장난이 아니다. 1조3000억 아닌 20조3000억이라 했다. 일단 폴란드가 수출대상국인데, 달러로는 200억불이다. 원, 세상에 단위가 커서 오히려 헛갈린다.

이육사의 시詩이다. 일제日帝의 군수산업에 동원되었던 처녀들의 눈동자란다. 구절

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개의 별을

...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야업軍需夜業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行商隊도 마음을 축여라
(이육사,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중에서)

격세지감 일게다. 이제 무기도 방어목적만이 아니다. 수출에 효자종목으로 등극했

다. 한국은 아직 휴전상태인데,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도 개발된 무기는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수출에서 까지 이익을 담당한다니 일거양득인가?

원화 환율이 올라간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원인이라 했다. 이건 좋은 징조인가. 달러에 비해 원화가 평가절하된다 했으니 말이다. 수출에서야 반가울 테지만, 비정상임에 틀림 없다.

내 학교선배의 이름이다. 이름엔 흔치 않은 상商자를 쓴다. 그는 상과대학을 나왔다. 너와 통상하여...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에스겔27:15)

마이크 리와 함께하는 목요일 모기지/부동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집은 기초가 중요하고 부동산 투자는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만큼 집구입 계획도 멀리보고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기지 준비부터 좋은집 고르는 방법까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RSVP: mike.m.lee@movement.com으로 원하시는 세미나 참석여부를 세미나 전날까지 미리 알려주세요.
 시간: 목요일 6pm-7pm (시간과 장소는 각 세미나 마다 변경 할 수 있으니 꼭 RSVP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p>[07/21/22] 내집장만 Primary: (The basic for first time buyers) Cohosted by: Heejung(Jessie) Joo, Blue Ocean Realty, heejeong.j2000@gmail.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10/06/22] 내집장만 Primary: (Rent vs. 내집장만. 과연 부동산은 좋은 투자인가?) Cohosted by: Jiyun Ha, Keller Williams Chestnut Hill, Jiyun_ha@kw.com 장소: 1340 Centre St., Suite 202, Newton, MA 02459</p> 
<p>[07/28/22] 투자하기 Investment: (The basic for first time investors) Cohosted by: Bo Kyung Shin, Premier Realty Group,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10/20/22] 투자하기 Investment: (다른투자 vs. 부동산. 과연 부동산은 좋은 투자인가?) Cohosted by: Chris Eun Choi, Premier Realty Group,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08/11/22] 내집장만 Primary: (지역선택의 중요성) Cohosted by: Susan Ahn, The Pro Realty Group, susan@prorealty.group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11/03/22] 내집장만 Primary Cohosted by: Miniee Sungmin Yoo, Keller Williams Chestnut Hill, s.yoo@kw.com 장소: 1340 Centre St., Suite 202, Newton, MA 02459</p> 
<p>[08/25/22] 투자하기 Investment: (지역선택의 중요성) Cohosted by: Changbae Son, Coldwell Banker Realty, Boston-Charlestown, changbae.son@cbrealty.com 장소: 2 Thompson Sq, Boston, MA</p> 	<p>[11/17/22] 투자하기 Investment Cohosted by: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kathysong2019@gmail.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09/08/22] 내집장만 Primary: (Property Type: Condo vs. SFR vs. Multi 차이점과 장단점) Cohosted by: Julie Jun, Premier Realty Group,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12/01/22] 내집장만 Primary: (for Millenials) Cohosted by: Christine Sohn, Premier Realty Group,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09/22/22] 투자하기 Investment: (Property Type: Condo vs. SFR vs. Multi 차이점과 장단점) Cohosted by: Clara Paik, JYP Realty, clarapaik@jypre.com 장소: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p> 	<p>[12/15/22] 투자하기 Investment: (for Millenials) Cohosted by: Diana Yeji Kim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장소: Movement Mortgag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p> 
	<p>[01/12/23] 신년계획 w/Financial advisor Cohosted by: TBD 장소: TBD</p> 



인생 최대의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주택용자/재용자, 주택연금/투자 전문용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 최적의 이자율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Call **MIKE LEE** today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Equal Housing Opportunity logo and fine print text.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부르는 이 습관 뇌 젊게 하는 6가지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의 도움을 받아 뇌 건강을 위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뇌 질환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다.

고작 1.4kg에 불과한 뇌는 전신을 지배한다. 하지만 노화·외상 등으로 한번 손상되면 보고, 듣고, 말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등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이렇게 손상된 뇌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평소 생활습관을 바꾸면 뇌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차단하는 수퍼브레인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알아보고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뇌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1 손쓰는 활동 늘리기
손은 제2의 뇌다. 손에는 뇌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망이 몸통·다리보다 촘촘하게 분포한다.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는 “손은 뇌와 긴밀하게 교감하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똑똑한 뇌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손편지(일기) 쓰기, 뜨개질, 피아노 연주, 종이접기, 화초 가꾸기 등 손을 쓰면 뇌도 바쁘게 활동한다. 뜨개질·퀵트 등 손을 쓰는 활동을 취미로 가진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인지·기억력 손상이 30~50% 덜했다는 연구도 있다. 작은 단추를 채우기 힘들고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흘려 쓰는 등 정확한 손 활동을 힘들어하면 뇌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2 지중해식 식단 실천
수퍼브레인은 평소 무엇을 먹느냐가 좌우한다. 뇌를 공격하는 술은 삼간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뇌 속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시스템이 망가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블랙아웃 현상이다.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면 뇌 손상으로 치매 등 뇌 질환이 발병할 소지가 크다. 한국인 입맛에 맞춘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밥을 지을 때 현미·귀리 등 잡곡을 섞고, 채소로 만든 겉절이나 나물을 끼니때마다 챙겨 먹는다. 나물을 무칠 때 쓰는 참기름·들기름에도 올리브오일과 마찬가지로 불포화지방산이 가득하다. 단백질은 고등어·꽂치 등 주 2회 먹는 해산물로 채우고, 소·돼지 등 붉은 고기는 월 2~3회 정도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영양소 비율을 5:2:3으로 맞출 수 있다.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을 6주 정도 실천했더니 뇌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다.

3 관심 분야 공부하기
뇌는 능동적으로 쓸수록 활성도가 좋아진다. 의학적으로 뇌 가소성이라고 한다. 소아청소년기 때는 학업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뇌를 쓰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일을 주로 수행하면서 덜 생각한다.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는 “잠든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새로운 활동은 능동적으로 뇌를 쓰는 공부”라고 말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 5일 하루 90분씩 3개월 동안 수학 문제를 풀고, 규칙적인 격자무늬의 다음 궤적을 그리게 하는 등 뇌가 생각하도

록 유도했더니 뇌의 활성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뇌세포끼리의 연결망이 튼튼해지면서 뇌 인지 기능 저하를 최소화한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공부를 시작하자. 단, 억지로 하는 공부는 뇌 건강에 독이다.

4 치매 물질 쫓는 꿀잠
잠은 지친 뇌에 활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오래 자는 것보다 짧더라도 깊은 숙면이다. 뇌세포의 변화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밖으로 빠져나간다. 매일 잠을 자야 뇌를 청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는 중년층부터는 하루 6~8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해야 한다.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은 정도의 상태다. 김희진 교수는 “불면증·코골이·야근 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 치매 유발 물질이 쓰나미처럼 뇌 전체로 퍼진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진이 치매 증상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 119명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조사했더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의 뇌 속에는 이미 치매 물질이 쌓이기 시작했다.

5 이 빠진 자리 채우기
치아를 지켜야 뇌도 지킬 수 있다. 입안을 점령한 입속 세균은 구강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위협적이다. 충치·잇몸병을 유발하는 진지발리스균 같은 입속 세균이 뇌로 침투해 뇌의 크기를 위축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 등 비정상 단백질이 뇌에 쌓인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치아 상실로 음식을 씹는 자극이 줄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뇌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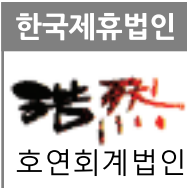
기능이 떨어진다. 임플란트 등으로 수복하는 것이 뇌 인지 기능 유지·회복에 좋다.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치아 개수는 18~20개다.

6 땀나는 유산소 운동
운동은 가장 강력한 뇌 건강 유지 비결이다. 윤영철 교수는 “운동은 중추신경계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의 산화손상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 타기, 빨리 걷기,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은 새로운 뇌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야 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뇌로 산소 공급량이 늘어 뇌 활성을 강화한다. 여러 임상 연구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5씩, 한번에 30분 이상 운동하면 치매 등 뇌 질환 발생 위험이 40% 줄어든다. 하루 10분씩 걷던 사람이 운동 강도를 높여 40분 동안 걷도록 했더니 1년 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피가 2% 늘었다는 연구도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치매 부르는 이 습관 ... 뇌 젊게 하는 6가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담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확충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p>상안검 or 눈썹거상술</p> <p>187만원 154만원~</p>	<p>하안검 + 지방재배치</p> <p>187만원 154만원~</p>	<p>안면거상술 +목거상</p> <p>880만원 660만원~</p>			
<p>이마 거상술</p> <p>495만원 330만원~</p>	<p>코 성형</p> <p>363만원 264만원~</p>	<p>지방이식 +PRP</p> <p>330만원 220만원~</p>	<p>가슴성형</p> <p>660만원 550만원~</p>	<p>지방흡입</p> <p>220만원 ~</p>	<p>이물질 제거</p> <p>110만원 ~</p>



“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네트워크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순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휴람성형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출신 노성훈성형외과	 김종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출신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김태현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민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차은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리본뷰티메디칼그룹
---	---------------------------------------	---------------------------------------	---------------------------------------	------------------------------------	--	--	--------------------------------------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

★ 미주, 캐나다 무료전화 (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제 42 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제 42대 한인회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각 한인 및 미국 단체와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유능하신 분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아래와 같이 회칙에 의거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서류 접수를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2년 10월 1일 -10.31일

2. 등록 방법

- 후보자의 이력서와 추천인 25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
 김동원(선관위위원장) dentikim@hotmail.com
 김병국(선관위간사) Byunggkim@gmail.com

〈공탁금 : \$5,000〉

공탁금은 회칙에 따라 선거에 사용된 지출을 정산한뒤 서류와 함께 남은 금액을 42대 당선자 집행부에 이관한다,

3. 선출 방법

- 후보자가 2인 이상. (선거인 명부 작성후 직접 투표로 선출. 자세한 내용은 양측 후보와 의논한다)
- 단수 후보일 경우 선관위가 서류 검토를 거쳐 선관위원장이 당선자를직접 발표한다.

4. 선거 장소

한인회관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김동원(41대 부 이사장)

선거관리 위원

- 남궁연(12대회장)
- 김영기(32대 회장)
- 안병학(35대 회장)
- 김병국(41대 이사)
- 애나 정 (41대 이사)
- 허훈 (41대 이사)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